

# 유관기관칼럼

## 사람이 희망이다



최갑홍

한국표준협회장  
02-6009-4675

흔히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사람이 없다는 하소연을 자주 듣는다. 좀더 솔직히 얘기하면 위험을 살피고 기회로 활용할 적인 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솔로몬의 지혜나 재갈공병의 통찰력을 두루 지닌 쓸만한 인재는 더욱 그렇다.

안타까운 사실은 인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재육성'이라는 표현을 즐겨 쓰며, 경기의 부침에 상관없이 '인재중시' 경영을 내세워 도전과 성장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인재를 바탕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했던 우리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권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고 있다. 막연한 불안감에서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온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경기불황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경제성장률 저하, 희망퇴직, 구조조정, 비용절감 등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러한 기업환경의 전반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 해답을 사람에서 또다시 찾아야 한다. 어려울 때 일수록 귀한 사람이 생각나는 것처럼, 경제 위기의 해결책은 경쟁력의 근본인 창조적 인재이다.

실제로 얼마 전 서울에서 개최된 글로벌 인재포

럼에서 180여명의 석학들은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들을 위한 해결책으로 창조적 인재육성을 꼽았다. 국내 모 연구기관의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슬로건도 인재육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기업 경쟁력의 시발점(始發點)은 혁신이다. 혁신은 조직이나 개인 역량에서 나오며, 개인 역량은 학습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쟁력 확보의 핵심은 사람 곧 인재개발이다.

과거 우리나라 산업발전도 우수한 인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60년대 섬유공학도가 70년대 섬유산업을 꽃피웠으며, 70년대 기계공학도가 80년대 자동차, 조선산업을 부흥시켰다. 80년대에는 전자공학으로 인재가 몰려 90년대 IT산업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모두 우수한 인재가 산업발전을 선도한 것이다.

기술도 마찬가지로 사람에서 나온다. 창조적 인재양성은 기술개발로 이어진다. 산업발전의 초기에 기술은 사람의 손(hand)에서 나왔으며, 손재주는 장인(匠人)의 전제조건이었다. 그 후 다양한 기능과 정확한 성능을 자랑하는 장치 기술이 규모의 중화학공업을 발달시켰다.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첨단시대 기술은 사람의



머리(head)와 가슴(heart)에서 나온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감성 기술이 각광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지난 6월초 미국 샌디에이고(San Diego)에서 열린 ASTD(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 Development) 컨퍼런스는 세계적 인재개발 메가트렌드를 보여주었다.

분화적 다양성이 존재하는 글로벌 시대에 효과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이 화두였다. 글로벌 리더십은 해외근무 관리자들이 가져야 할 필수조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컨퍼런스 기간 중 참가자의 현지 방문코스인 콰콤(Quakomm)社は 세계적 통신기업의 성장조건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곳의 CLO(최고 교육책임자)의 역할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니즈를 경영전략 수립에 반영하거나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고객 맞춤형으로 재편성하고, 부분별로 역량중심의 인재육성 체계를 수립하여 경영성과를 극대화시키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쉐콤은 10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인하고 싶은 직장으로 선정되었다.

경제학자 슈페터는 경기순환론에서 “경기는 마치 바다의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것처럼 불경기과 호경기를 반복한다”고 역설하였다.

경기가 좋아질 때 기업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직에 몸담고 있는 인재들의 역량을 키워주어야 한다.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미래가치를 위해 체계적인 인재육성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교육투자가 필요하다. 인재개발에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기업만이 미래를 지배할 수 있다.

| 기술표준 2009.1

